



北해킹 이메일 예시 내용



사이버 치안!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Cyber Bureau



경 찰 청
사이버안전국
CYBER BURE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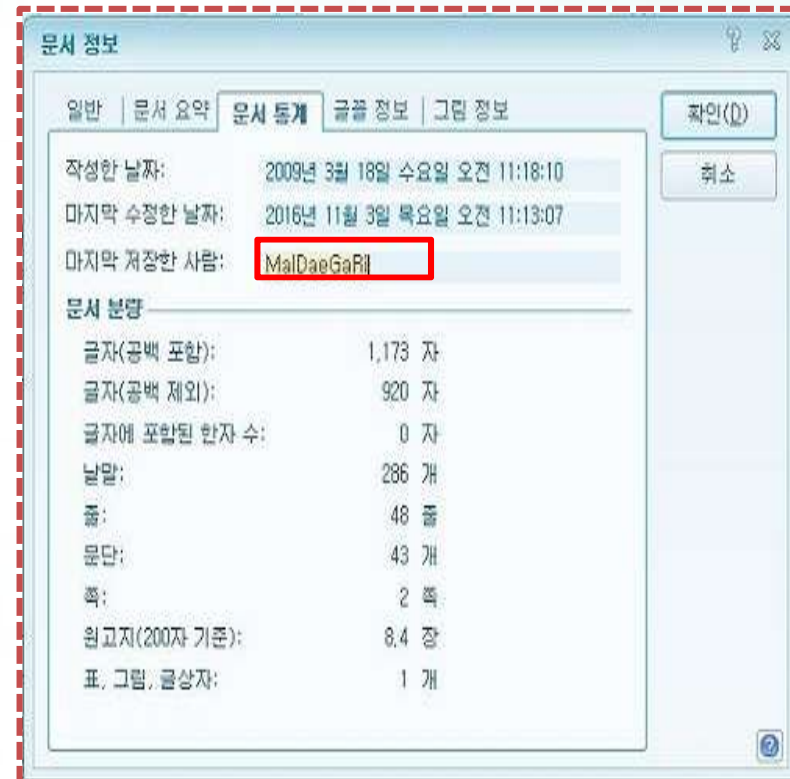
北 해킹 이메일 예시 내용

사이버 치안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Cyber Bureau

● 북 관련 기관 사칭 악성메일 원문



● 한글 파일 문서 작성 정보





北 해킹 이메일 예시 내용

사이버 치안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Cyber Bureau

● 악성파일 우려되는 대한민국.hwp 전문

우려되는 대한민국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실로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정국이 뒤집히고 박대통령의 하야를 노골적으로 외치고 있다.
변변한 말 한마디 없던 야당이 때를 만난 듯이 정부를 공격하고 비방하고 정권탈취를 시도하고 있다.

그들은 아마 지금 눈앞에 대통령직이나 총리직이 다 저들 거로 보이는지 ...
그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의 것이라는 헌법 1조를 내세워 그 정당성을 말하고 있다.
국민이 하야하라니 대통령은 하야 하라.
아직 특검도 끝나지 않고 여론으로만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의 인터뷰를 보니 더욱 기가 막히다.
결국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박대통령의 하야만이 아니라 모든 공권력의 총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그게 그들이 바라는 진짜 의도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모든 종북파들, 야당파들이 나라의 모든 공권력을 틀어쥔다고 생각해보라...
그들은 김정인을 대통령직에 모셔올지도 모른다.
이제 박대통령의 모든 공이 샅시에 무너져 내리고 이미 한 결정들을 무효로 할 것이다.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고 사드배치가 철회 될 것이다.
그러면 북한 핵은 더욱 강해지고 우리에게서 그것을 저지할 수단조차 없어진다.
요즈음 북한의 움직임은 더욱 우려를 준다.

그들은 미국, 일본과 비밀협상중이고 일본과 협상을 바란다는 공식적 견해까지 밝혔다.
중국은 이제는 유엔제제고 뭐고 막대한 자금을 북한에 보내고 많은 접촉을 하고 있다.
박대통령을 연일 조롱하는데서 북한에 뒤지지 않는다.
미대선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가지는 않는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릴 때가 되었다.

해법은 무엇인가?

바로 박근혜대통령을 지키는 것이다.

국정농단은 최순실만 없으면 없는 것이다.

국민이 대통령을 믿어주고 대통령이 국민을 믿고 강한 조치를 취하게 하자.

박대통령이 없이 남은 몇 달간 무슨 도발이 있을지, 너무도 걱정된다.

대통령은 국민을 믿고 국민을 납득시키라. 북한의 도발과 대한민국이 처한 위험을 국민이 먼저 알게 해야 한다.

박대통령이 취한 모든 자위차원의 조치들이 그대로 실현되게 해야 한다.

우리 국민이 어쨌든 모두 지지한 조치들이 아닌가.

국민과 국가 안보가 첫째다.

적어도 그러한 결정들이 철회되지 않는다는 것을 새 지도자들이 국민에 약속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에게 더 이상 기회를 줄 수 없음을 말하고 싶다.



北 해킹 이메일 예시 내용

사이버 치안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Cyber Bureau

● 북 신년사 분석 악성메일 원문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자료
북한연구학회 연학자 추가 2017-01-02 오전 9:08

받는 사람

5170101-17
년, 북한, 신년
사 분석.hwp

2017년 신년사 분석자료입니다.

내용은 붙임 자료 참고 바랍니다.

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것을 거부하며,
위반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일연구원 북한연구학회

● 한글 파일 문서 작성 정보

문서 정보 ? X

일반 | 문서 요약 | 문서 통계 | 글꼴 정보 | 그림 정보

확인(D) 취소

작성한 날짜: 2013년 6월 24일 월요일 오전 8:15:42
마지막 저장한 날짜: 2017년 1월 2일 월요일 오전 7:52:24
마지막 저장한 사람: pad-2

문서 분량

글자(공백 포함):	4,308 자
글자(공백 제외):	3,195 자
글자에 포함된 한자 수:	13 자
날말:	943 개
줄:	228 줄
문단:	195 개
쪽:	7 쪽
원고지(200자 기준):	34.1 장
표, 그림, 글상자:	10 개

?



北 해킹 이메일 예시 내용

사이버 치안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Cyber Bureau

● 악성파일 2017년 북 신년사 분석.hwp 전문

2017년 「北 신년사」 분석

2017. 1. 1(일)



< 첫 페이지 >

- 고위급 접촉 등 당국간 회담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이 없는데, 올해도 민간 자원의 접촉을 통한 '대남 혼들기' 강화 전망
- ⑤ 대외분야에서는 구체적 제안 없이 미국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선제공격 능력을 강화할 것임을 언급하며 핵능력에 대한 자신감 표출
 - 미 대선 및 트럼프 정부에 대한 언급을 삼가며 구체적 대외정책 전략은 밝히지 않았으나,
 - 과거 신년사에 없었던 '선제공격능력'을 추가, 핵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 하면서 향후 한미군사훈련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응해나가겠다는 점을 시사
 - 향후 상황을 전망하며 대외 제의 등의 가능성 불매제
 - '자주·전선·평화'를 강조하며 우호적 국가와의 관계발전을 언급, 경제에도 불구하고 대외적 고립을 탈피하겠다는 의지 강조

- 5 -

붙임 ① '16년 및 '17년 주요과외 비교

* 이불을 꼭 확인한 한글문서로 보실 수 있습니다.

② '16년 및 '17년 대남분야 비교



< 마지막 페이지 '링크' 모습 >



北 해킹 이메일 예시 내용

사이버 치안!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Cyber Bureau

포털업체 사칭 이메일 예시

● 다음 관리자 사칭 피싱메일

[다음메일] Daum 메일 서버에 대한 해킹 감지되었습니다.
Daum 고객센터 (user-security@daum.net) 연락처 추가

받는 사람: [redacted] 2015-12-11 오전 10:48

✖ **불가한 인터넷 세상, 우리 함께 만들어요.**

안녕하세요, Daum 고객센터입니다.

Daum 메일 서버에 대한 해킹 감지되었습니다.
고객님들에게 불편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Daum 메일 서버에 대한 해킹 감지되어 복구소급지만 해일 드립니다.
2015.12.10(목) 늦은 밤에 해킹서버에 불법 접속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고객님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을 수 있으나 빠른 시일안에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시요.

지금 비밀번호 변경하러 가기 >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고객님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없으며 다른 사용자에 의해 별도 통보없이 친구 삭제/폐쇄 될 수 있습니다.

Daum은 안전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고,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더 심혈을 기울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피싱사이트

daumclean125mb.com/change/password.php?continue=http://daum.net

Daum 고객센터

내정보 내정보 홈 내정보 관리 내정보 보호 **비밀번호 변경** 비밀번호 찾기

주기적인(6개월) 비밀번호 변경을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현재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새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TIP

- 비밀번호는 8-12자의 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비밀번호를 100% 지운 후 새 비밀번호가 있을 경우, 도둑질이 쉬운 로그인 비밀번호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밀번호에 특수문자를 추가하여 사용하시면 100% 지우고,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취소하기 비밀번호 변경



北 해킹 이메일 예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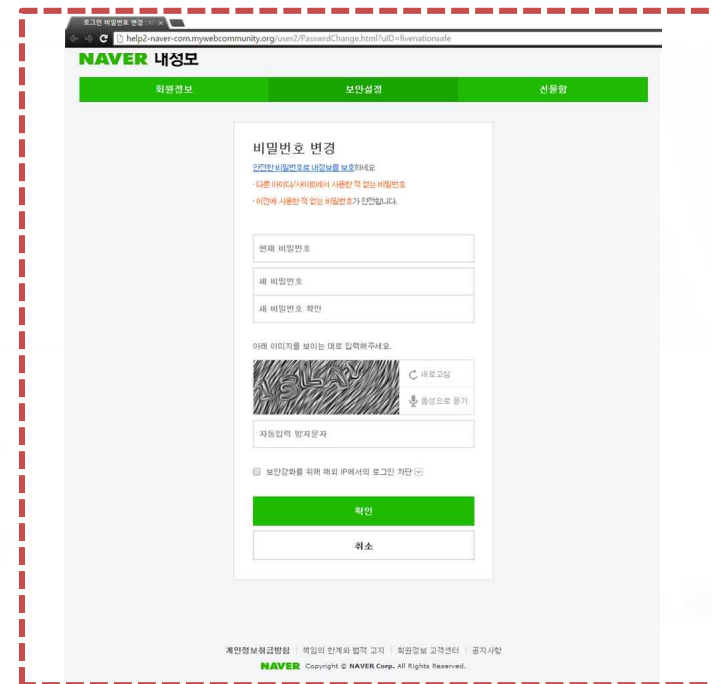
사이버 치안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Cyber Bureau

포털업체 사칭 이메일 예시

● 네이버 관리자 사칭 피싱메일



● 피싱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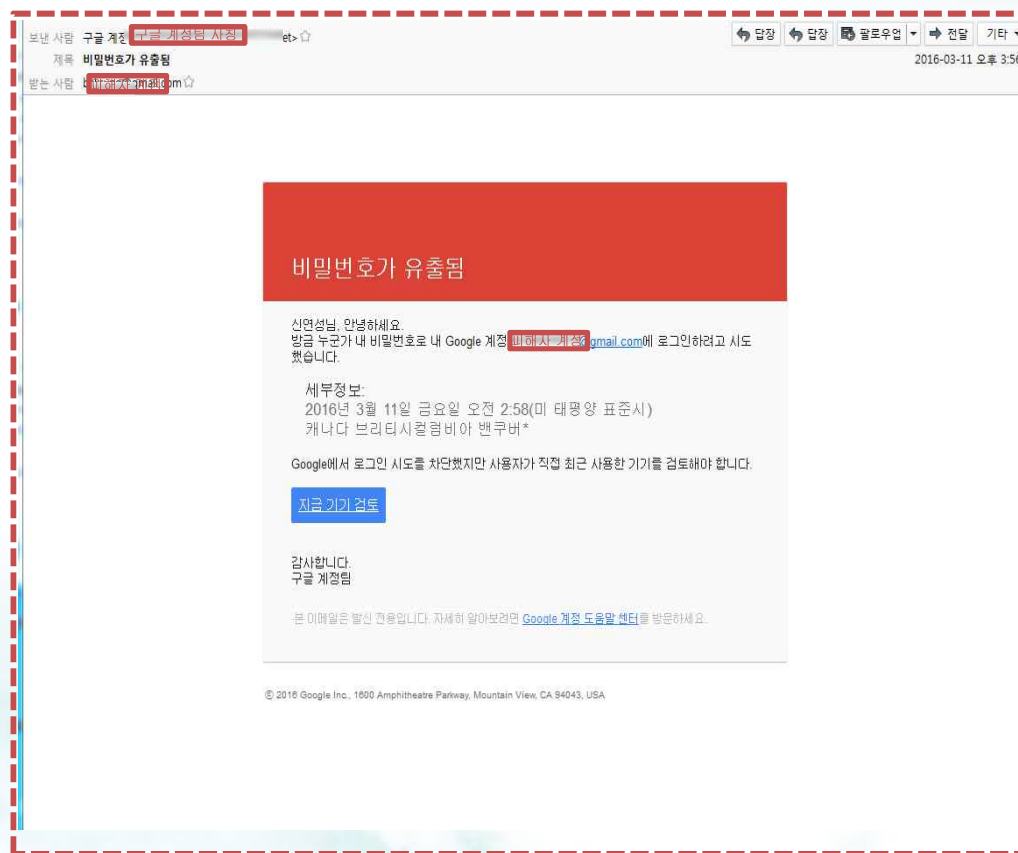


北 해킹 이메일 예시 내용

사이버 치안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Cyber Bureau

포털업체 사칭 이메일 예시

● 구글 관리자 사칭 피싱 메일





北 해킹 이메일 예시 내용

사이버 치안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Cyber Bureau

국제기구 사칭 이메일 예시

● UN 사칭 악성파일 유포 메일

보낸 사람 Franz Kolar <sc-1540@UN사칭 사칭> daum.net ☆

답장 답장 팔로우업 전달 기타

제목 Informal list of 1540 related events dated 24 November 2015 2015-11-26 오후 4:59

받는 사람 UN군무차 : 모두 표시(19 건)

Dear all,

Please, find attached the updated version of the list dated 24 November 2015. For your convenience, new information is highlighted in GREEN.

Best regards,

Franz Kolar
Support to the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 (2004)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ranch
UN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

UN Secretariat
Room S-3152
New York, NY, 10017
Tel: +1 212 963 7618
Email: kolar@un.org

첨부 파일: 1540EventListv5224112015 fdp.SCR 396 KB

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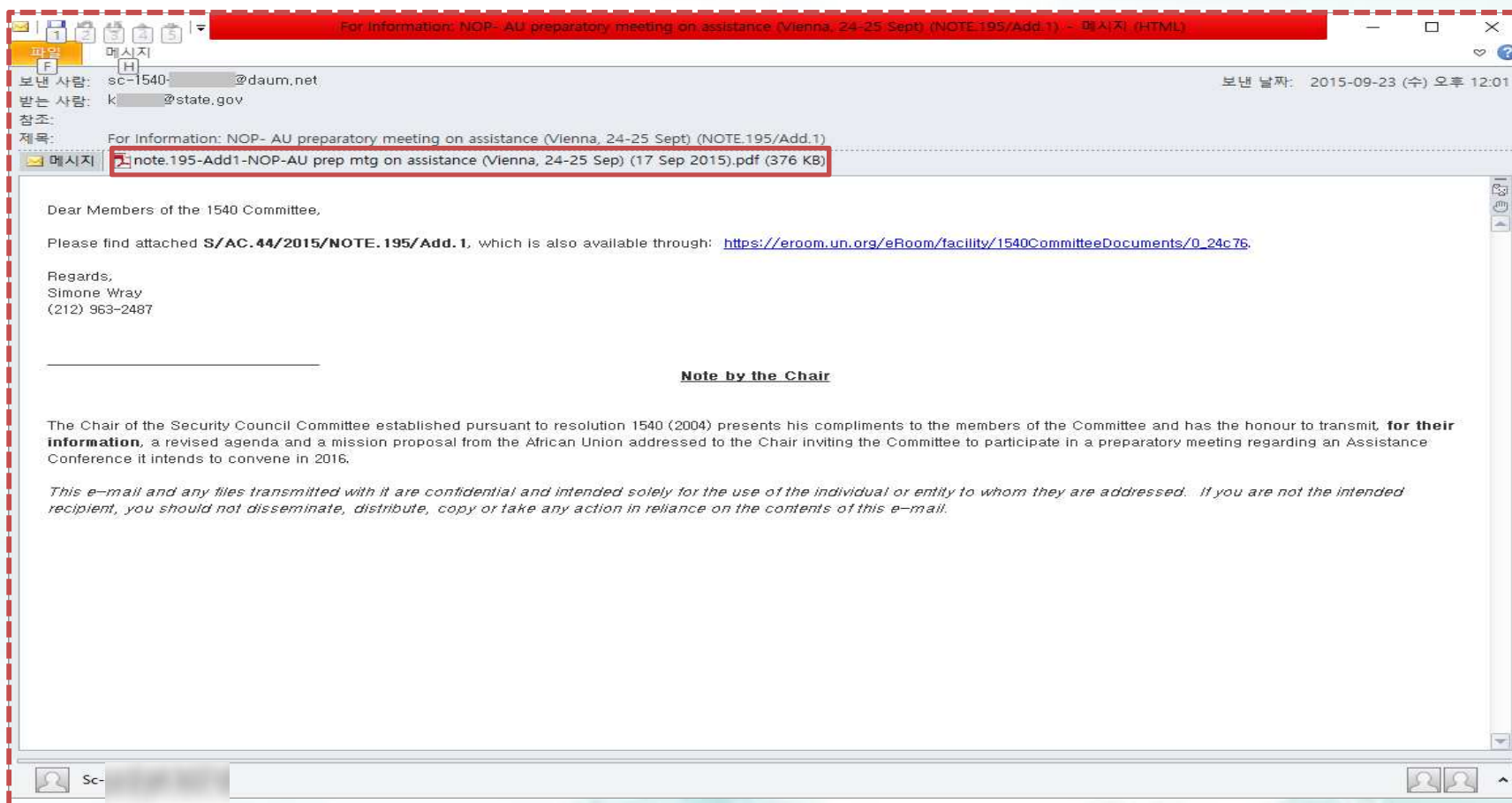


北 해킹 이메일 예시 내용

사이버 치안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Cyber Bureau

국제기구 사칭 이메일 예시

● UN 사칭 악성파일 유포 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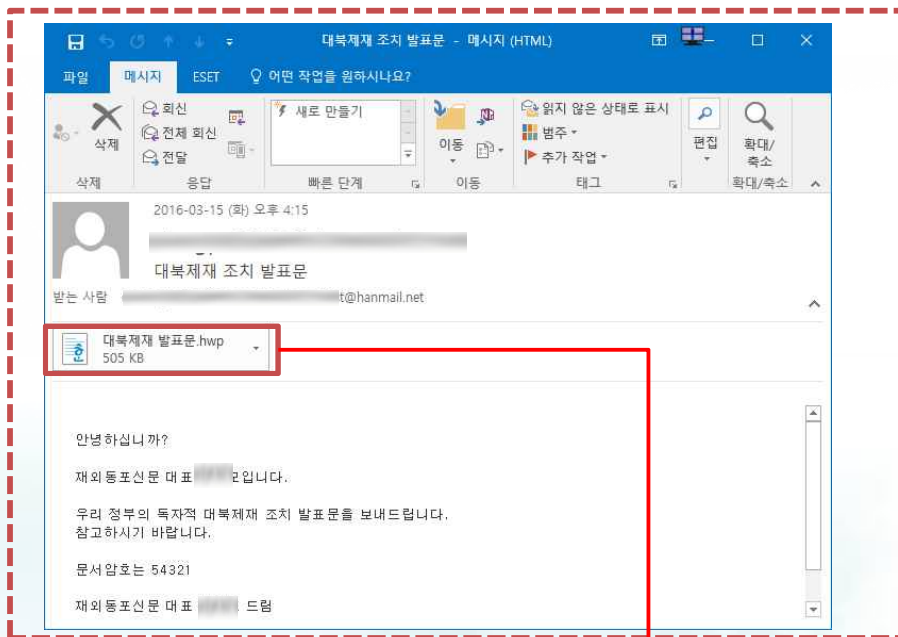


北 해킹 이메일 예시 내용

사이버 치안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Cyber Bureau

언론사 사칭 이메일 예시

재외동포신문 사칭 메일



첨부파일 내용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연이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이는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경면 도전으로서, 국제사회는 단호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의 일환으로 유엔 안보리에서는 3월 3일(뉴욕시간 3월 2일) 비군사적 제재결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결의는 무기거래, 제재대상 지정, 해운·항공 운송, 대외 교역, 금융거래 등 기존 제재 조치들을 대폭 강화했으며, 석탄·금 등 광물분야 금수 조치와 같은 북한 관련 제반 측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롭고 강력한 제재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계속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상응하는 엄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잘못된 선택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의 발현입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행동으로 옮겨 나가는 데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결의 채택 당일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하여 동 결의의 철저한 이행 계획 마련에 착수하였으며, 유관 부처 협조 하에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의 규정에 따라 안보리에 이행보고서를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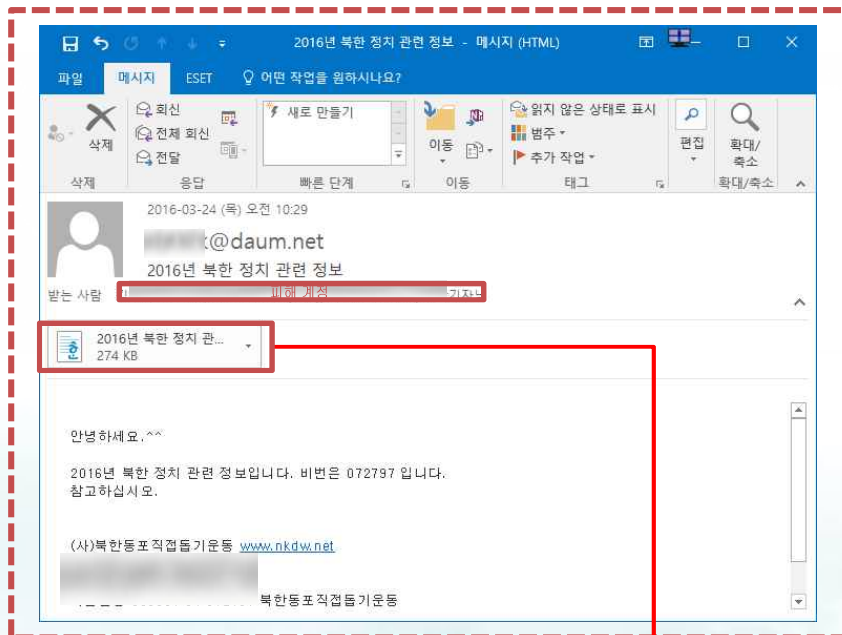


北 해킹 이메일 예시 내용

사이버 치안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Cyber Bureau

북한 관련단체 사칭 이메일 예시

● (사)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사칭 메일



● 첨부파일 내용

2016년 북한 정치 관련 정보

김정은의 권력동향

지난 1월 6일 북한당국이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2월 7일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해 한반도 경세가 점여화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의 권력기반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지난해(2016) 12월 29일 북한의 대남전반을 관장하는 노동당 비서 김양건이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조선중앙통신은 이례적으로 사고소식을 발표했다.

향년 73세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당 중앙위원회 비서'라는 직책을 두루 갖춘 김정은의 '외교보좌관' 김양건이 교통사고로 사망한데 대한 의문이 북한내부에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양건은 김정일 체제에서 국제부장을 거쳐 대남비서를 하면서 대중국 외교등을 관장, 지난 8월에는 북한의 지리 도발로 말미암은 남북한 긴장 국면에서도 '김정은식 화전양면 전술'을 구사하며 대화 분위기를 마련하기도 했던 인물이기때 그의 사망에 북한주민들이 슬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1월 30일 탈북군인 출신 단체인 북한인민해방전선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김양건노동당 비서는 신의주에 있는 축정기구공정 시설을 마치고 김정은 최고사령관 주대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북극하단 중 신의주-평양간 도로에서 주돌사고로 사망했다.

소식을 전한 내부소식통은 "어제 아침 평양으로 올라오던 김비서 차가 무역을 위해 신의주로 향하던 군번호를 단 화물차량과 충돌하여 그자리에서 숨을 거뒀다"며 "평양에서는 이 사고에 대해 이미 의도적인 암살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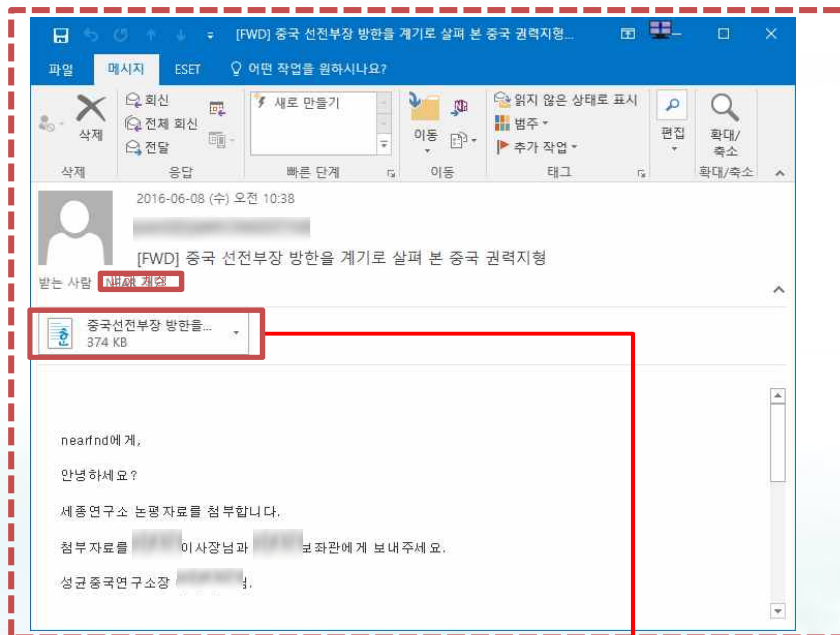


北 해킹 이메일 예시 내용

사이버 치안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Cyber Bureau

연구기관 사칭 이메일 예시

● 성균중국연구소 사칭 메일



● 첨부파일 내용

중국 선전부 부장 방한을 계기로 살펴 본
중국 권력지형

지난 주 류치바오(劉奇葆) 중국 공산당 선전부 장이 방한했을 때 그의 한국쪽 상대는 이준식 부총리였다. 중국에서 '부장' (部長)은 장관급인데 한국에서는 부총리급이 아닌 것에 대해 의문상 '급'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사실 두 사람은 '동급'이다.

류치바오는 중국에서 서열의 기준으로 삼는 공산당 서열로 볼 때 국가급 지도자급인 '정치국 상 무위원' (政治局 常務委員·품7) 바로 다음의 행에 속하는 '정치국위원' (政治局 委員·품25)이다. 그는 공산당 서열상 '부국가급 영도인' (副國級領導人)으로서 부총리급의 서열에 있다. 이준식 부총리가 교육부 장관을 또한 겸하고 있으니 의전상으로 볼때 그들은 모두 부총리급이면서 장관직을 겸하고 있는 것이다.

관심을 끄는 것은 류치바오가 맡고 있는 또다른 직함이 '중앙서기처 서기' (中央書記處書記)란 점이다. '중앙서기처'는 문화혁명이 시작된 1966년에 1 인권을 지향하는 마오쩌둥(毛澤東)이 없었다가 1980년에 다시 부활했다. 정치국의 필과 다리인 집행기구(辦事機構) 역할을 하고 있다. 모두 7명의 서기가 있는데 선전부 부장 말고도, 조직부 부장, 중앙당교 교장, 기율검사위원회 2인자, 중앙판공청 주임, 정협 2인자, 국무원비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도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서 좌장 역할을 하는 인물은 그 중의 한 명이자 중앙당교 교장이며 또 정치국 상무위원인 류원산(劉元山)이다. 정치국 상무위원이 직접 '서기'로 일하면서 또 한 다른 서기들을 감독하는 것은 서기처가 얼마만큼 권력행방에 있어서 민감한 위치에 있는지를 시사한다. 이는 마오쩌둥이 말한 것처럼 '서기처가 공 산당 고위 결정에 있어서 '무슨 일이든지 관여해야 하고' (什麼事都要管), '어떠한 '보고나 문건도 우선 서기처에 보내져야' (報告、文件都要先送書記處)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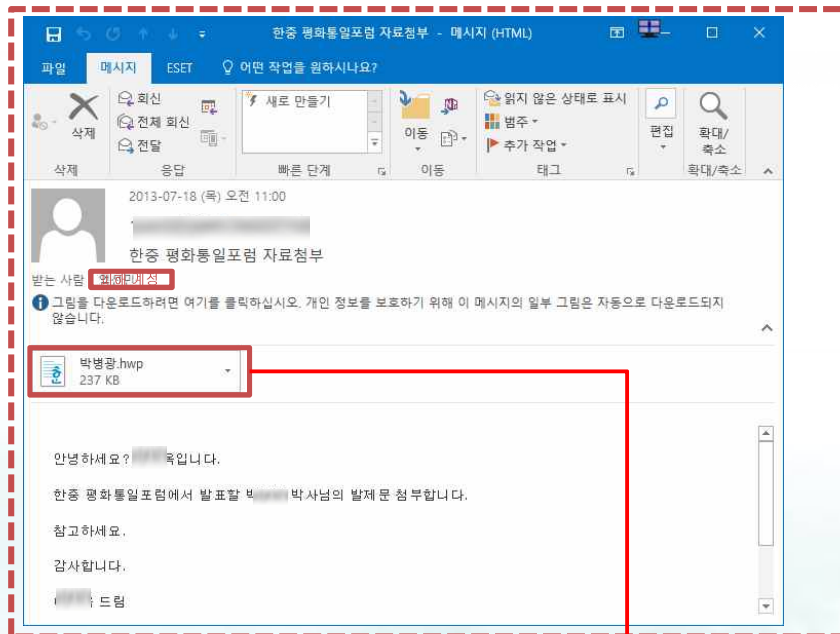


北 해킹 이메일 예시 내용

사이버 치안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Cyber Bureau

개인 사칭 이메일 예시

● 개인 사칭 메일



● 첨부파일 내용

정전체제 종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중 협력방향

I. 머리말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이 되는 해다. 한국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트남전쟁 다음으로 많은 사상자를 낸 대규모 국제전이었다. 민간인을 포함해 약 3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유엔군 대표로 나온 윌리엄 해리스 미 육군중장과 북한군과 중공군을 대표한 조선인민군 대장 남일이 휴전협정에 서명함으로써 3년여에 걸친 소모전은 막을 내렸다.1) 하지만 60년이 지난 지금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병력이 비무장지대(DMZ)를 사이에 두고 대치중이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같은 평화가 간신히 유지되고 있을 뿐이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로 끝나고 만 것은 사실상의 봉건 왕조국가로 고착화한 북한의 정치체제에도 문제가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분단 상태의 지속을 바라는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감사합니다



사이버 치안!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Cyber Bureau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CYBER BUREAU